

## KIET · RIETI · TIER의 공동 워크숍 참석

- 장윤종 선임연구위원(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)
- 서동혁 연구위원(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)
- 최동원 초청부연구위원(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)

### I. 출장개요

- 출장자 : 장윤종 선임연구위원  
 서동혁 연구위원  
 최동원 초청부연구위원

출장기간

- 장윤종, 최동원 : 2012년 11월 12일 ~ 11월 17일
- 서동혁 : 2012년 11월 14일 ~ 11월 17일

- 출장지역 : 일본, 동경

출장목적

- KIET(한), RIETI(일), TIER(대만)의 공동 Workshop 참석  
 (장윤종, 최동원)

- 일본 정책기관 및 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일본의 최근 산업현황과 해외직접투자가 일본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해외생산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조사  
(장윤종, 최동원, 서동혁)

## II. 출장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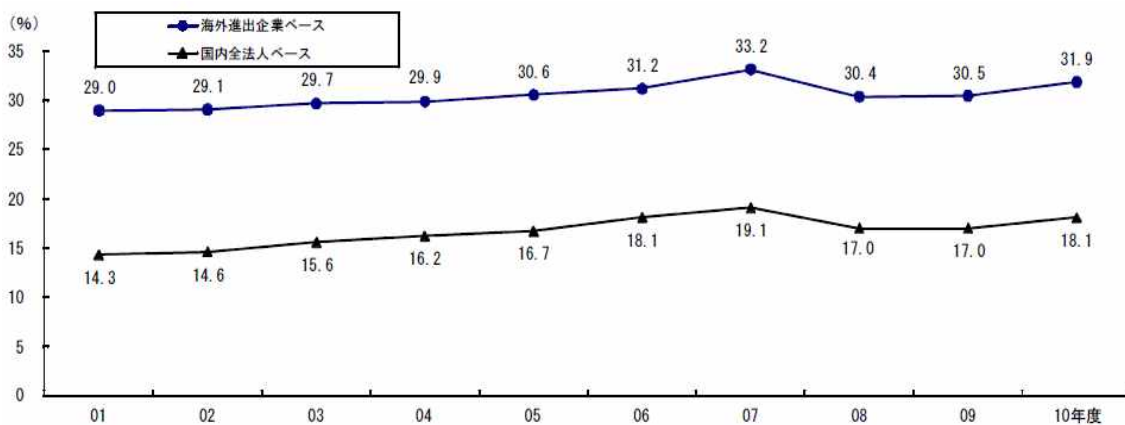
일자	일정
11/12 (월)	김포→도쿄(하네다) <KE 2707>
	기계진흥협회 경제연구소 방문
	미쓰비시연구소 방문
11/13 (화)	KIET-RIETI-TIER 공동 Workshop
11/14 (수)	오타구 소재기업 방문
	일본정책투자은행 방문
	경단련 방문
	권혁욱 교수(일본대학 경제학과), 김영각 교수(전수대학 경제학과) 미팅
11/15 (목)	中村吉明 (Nakamura yoshiaki) 경제산업성 입지환경정비과장 미팅
	北嶋守(Kitajima Mamoru: 기계진흥협회 조사연구부장), 太田志乃(Ota Shino: 기계진흥협회연구원) 미팅
	자료조사 (기계진흥협회 도서관)
	자료조사 및 구입 (신주쿠 Kinokuniya서점)
11/16 (금)	佐藤仁志 박사(Sato Hitoshi: RIETI 연구원) 미팅
	자료조사 및 구입 (정부간행물센터)
	乾友彦 교수(Tomohiko Inui: 일본대학 경제학과) 미팅
	유재상 교수(일본복지대학 경영학과) 미팅
11/17 (토)	도쿄(하네다)→김포 <KE 2708>

### Ⅲ. 출장결과 종합 및 시사점 : 해외생산 관련

#### □ 최근의 엔고 및 지진은 제조업의 해외생산 확대 유발

- 일본의 경우, 급격한 엔고 및 지진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증가로 인해 최근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
- 제조업 전체의 2012년 상반기 설비투자 해외비율은 3년 전에 비해 6%포인트 이상 상승한 19%를 기록 (내각부 자료)
  - 수송기계의 2012년 4~6월 설비투자 해외비율은 45%로 3년 전의 30%에서 급상승
    - 해외비율은 수송기계 뿐만이 아니라, 일반 기계나 화학, 요업 등 소재 업종에서도 상승
-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은 2000년대 들어 완만하게 상승세 지속하는 가운데 2010년도(2011년3월기)에는 18.1%를 기록

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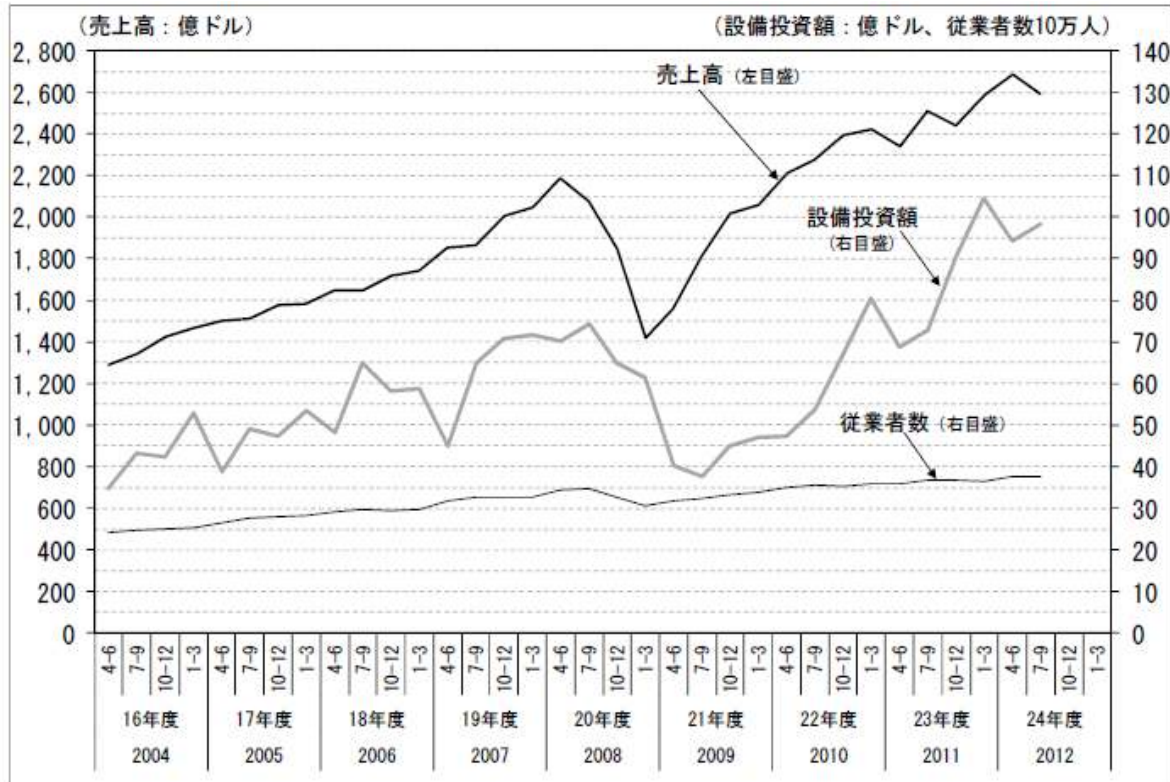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일본 경제산업성, 第41回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結果概要, 2012. 5.

- 현지법인 매출액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사 대폭 감소했지만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빠르게 증가

- 현지법인의 고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

### 일본 제조업의 해외현지법인 실적 추이



자료 : 일본 경제산업성, 海外現地法人四半期調査平成24年7-9月期), 2012. 12.

주 : 대상은 제조기업으로서 종업원 50인 이상인 기업.

#### □ 해외생산의 영향에 대해서는 양면의 입장이 상존

- 전통적으로 일본은 해외생산 확대를 통한 수출 증대라는 양자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제조업의 확대균형 성장을 달성
- 그동안 해외생산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으며, 현재도 정부 및 학계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인식
- 해외생산의 대체성, 보완성에 대한 논쟁은 논문마다 상이하지만, 산업전체적으로는 대체로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는 '보완성'(수출유발)이 큰 것으로 인식

- 기본적으로 해외생산 확대는 '공동화'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'구조조정'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문제라고 파악
  - 학계 일부에서는 해외생산의 긍정적 효과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추진되는 해외생산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주장
- 반면 부정적 시각은 경단련을 중심으로 한 업계에서 최근 점차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일반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
- 공동화 우려감까지는 아니더라도, 업계 단체에서는 엔고로 인해 해외이전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려를 표시
    - 일본은 해외생산 증가에 따라 발생가능한 수출대체, 역수입, 국내 고용감소, 기술유출 및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일본식 국제분업 형태의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부분적으로 표출
  - 해외생산에 의한 순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2001년에 비해 수출대체 및 역수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약 4배나 증가

###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에 따른 효과

단위 : 조엔

년도	현지법인 매출액	①해외생산으로 인한 부정적효과			②긍정적 효과	해외생산에 의한 순효과 (②-①)
		수출대체	역수입	중간재수출 유발		
2001	64.0	21.1	15.1	6.0	17.3	-3.8
2002	64.6	21.9	15.5	6.4	15.1	-6.8
2003	71.0	23.9	17.1	6.8	16.9	-7.0
2004	79.3	28.9	20.5	8.5	20.5	-8.4
2005	87.4	30.7	21.4	9.3	21.9	-8.7
2006	99.7	36.7	25.3	11.4	23.9	-12.8
2007	111.0	37.9	26.9	11.0	25.4	-12.5
2008	91.2	34.5	24.2	10.3	22.6	-11.9
2009	78.3	29.5	21.1	8.3	16.1	-13.4
2010	89.3	33.6	23.8	9.8	18.4	-15.2

자료 : 경제산업성,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(2001년~2010년)를 토대로 작성

주 : 수출대체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제3국으로의 수출을 의미

역수입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일본으로의 수출을 의미

중간재수출유발은 일본으로부터 일본기업의 해외현지법인으로의 수출을 의미

## □ 일본내 여건은 해외생산 확대가 불가피

- 일본의 경우, 1990년대까지는 중요한 기반산업을 일본 국내에 남겨두는 일본식 해외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생산에 따른 부작용 해결 및 성공적인 국제적 분업 형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
- 그러나, 그동안의 엔고 및 불안한 에너지 공급으로 인한 해외생산 압박이 증대되면서 해외투자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. 가운데,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주요산업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일본내 생산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 고조
  - 대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이 어려운 자본재·중간재 관련 중소기업의 수주감소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중요 기반산업의 쇠퇴에 따른 전체적인 일본식 국제분업 형태의 약화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
    - 도쿄 도심(23구) 내에 4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오오타구의 중소기업의 급격한 감소는 중소기업 약화의 반증
    - 산요전기 공장의 폐쇄로 大泉町 지역의 종업원수는 2007년 약 16,000명에서 2010년 12,400명으로 감소(경산성 자료)
  - 신일본제철의 경우,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시스템을 구축해 왔지만 지금과 같은 엔고 상황에서는 새로운 생산공장을 일본 국내에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름
  - 도요타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의 엔고 수준은 수익의 문제보다 50%의 국내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
- 이에 따라 1980년대에 구축된 일본식 국제분업 형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, 그리고 해외생산 확대가 여전히 긍정적인 보완효과가 크게 발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석이 필요

## □ 해외생산 문제의 본질은 기업 이익과 사회적 공익 간의 조정여부

- 일본에서 제조업 해외생산은 향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

로 예상

- 내각부에 의하면, 해외생산 확대 의해서 국내의 제조업이 축소되더라도 곧 바로 국내고용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
  - 다만, 일부 고용조정이 급격하게 행해졌을 정도로 해외생산이 크게 위축될 경우에는 '소득의 감소를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'고 분석
- 국내공장의 해외이전 및 국내공장의 통합(집약화)이 주는 영향은 동전의 양면이며 이 두 가지 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것임
  -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강화에 기여(사적 편익)
  - 지역의 고용문제를 유발하고, 아울러 외부경제효과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(사회적 편익)
  - 기업 해외생산의 확대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는 이러한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간의 괴리를 어떻게 조정하여 국내외 생산의 균형을 이룰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임

## IV. 방문 기관 및 면담 내용

### 1. 일본 기계진흥협회

#### □ 일본의 기계산업의 현황 및 전망

#### ○ 일본 기계산업의 수출은 성장세가 크게 둔화

- 2011년 3월까지 1.3% 증가한 68조3천억 엔을 기록

#### ○ 수송, 전기기계 부분의 수출은 지금까지 안정적인 경쟁구조를 유지해 왔지만 계속되는 엔고로 인해 경쟁이 점차 심화

- 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생산이 확대되는 추세

- 공작기계의 경우, 지금까지 유럽, 아시아, 중국, 일본 시장이 견인해 왔지만 환경변화로 인해 인도 및 태국시장 등이 증가세에 있음

- 국내생산, 수출, 해외생산 및 현지판매에 있어 업종에 따른 수요, 공급의 양면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

- 일본 정부는 국내 생산을 희망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는 추세

#### ○ 기계업체의 수익성 및 전망

- 내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,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일본 공작기계 산업의 전망은 대체로 밝은 편

- 다만,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의 산업기반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

· 기계산업은 현재 엔고로 인한 해외생산 및 진출로 인한 현재의 시스



## 템 붕괴 우려

- 업종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양측을 고려한 국내생산과 현지생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

### □ 의료기기 산업 및 한일 협력 가능성

-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, 전자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진단기기 분야는 일본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우 유망한 분야로 판단

- 그러나 치료기기의 경우는 유럽 기업들이 전통적인 강세를 유지

- 전자기업들은 최근전자부문의 경쟁력 약화에 대처하여 의료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 강하게 표출

- 도시바, 소니, 파나소닉, 샤프 등 전통적인 전자산업 강자들은 기존 핵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의료부문 비즈니스를 새로운 돌파구로 인식하는 경향

- 의료기기산업은 시장규모가 작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계 생산기업을 의료산업으로 유도하고 정부차원의 진입가능 시장조사 등의 지원이 필요

-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, 한·일 간 클러스터 산업의 연계 가능성이 높음

## 2. 미쯔비시 연구소 방문

### □ 신성장동력산업의 결정 및 실행에 있어서의 일본 정부의 역할

- 일본의 경우, 이전에는 자율적인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경상예산 및 대학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

- 현재는 NEDO(신에너지·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)의 지원 및 예산분배에 관한 연구조사, 학진(學士院)의 연구자 모임에서의 의견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, 문부과학성, JST재단의 전략센터 등 각 부처의 워크샵 등을 통해 선정된 사안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경제산업심의회가 중점화를 결정
- 최종적으로는 종합과학기술청이 각 처의 안을 조정한 뒤, 재무성이 예산을 분배하는 시스템

□ 융합산업의 미래 또는 허상

- 일본의 경우, 자신이 직접 산업 간의 융합을 실행하려는 사람(기업)은 별로 없으며, 기술 연계로 시너지, 파급효과가 큰 사업끼리 연계가 필요

□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일본 정부차원의 자원재분배 및 정책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분야 (예를 들면, 인력, 재무, 기업가정신 교육·육성시스템 및 제도)

- 일본의 경우, 일관된 정책 부재
- 정부 제도가 방해가 되는 경우도 존재 (지역별 산업규제, 인프라 지원미비)
- 각 부처별 갈등 발생 (실행에 있어서의 어려움)

□ 일본의 기업가 정신

- 불황으로 인해 대기업이 주력 사업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상황에서는 분사 등을 통한 니치시장 진입 등, 대기업 주도를 통한 기업가 정신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움
- 2000년대 초, 자본금 10억엔 이상의 일본 기업들 중 미국식 형태인 주주 및 임원 급여에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음 (R&D 및 직원 월급 감소)

- 한국 대기업의 경우, 기업가 정신이 활발한 것으로 보이나 일본의 경우는 위험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
- 주식상장을 최종 목표로 삼는 벤처기업이 많으며 이러한 경우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기대하기 어려움
- 2000년 이후 세계시장의 변화 (중국, 인도 등 거대시장의 등장)에 보조를 맞추지 못함

□ 일본의 태양광 발전 산업

- 일본의 태양광 발전의 경우, NEDO가 산업 초기단계부터 지원하였으나 그 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중단된 시기에 독일 등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룸
-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예산이 적으며 태양광의 경우,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현지생산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일본은 기후적으로 태양광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

□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있어서의 대기업의 역할

- 대기업만으로는 이끌어 가기 어려우며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
- 속도 등을 고려할 때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육성이 바람직함

□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

- 일본의 경우, 감점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음
- 전문가에 의한 가점 평가시스템이 필요

#### 4. RIETI-TIER-KIET Workshop

- 일시 : 2012년 11월 13일
- 장소 : 경제산업연구소

시간	발표
10:00~10:30	<b>개회사</b> (Atsushi Nakajima, Chairman, RIETI; David S. Hong, President TIER; 송병준, President, KIET)
10:00~10:30	<b>Keynote Speechi</b> "Mainstreaming Global Resilience: The Lessons from Complex Mega-disasters" Masahisa Fujita, President, RIETI
<b>Session 1</b>	<b>Production Networks and Risks</b> Session Chair: 송병준, President, KIET
11:00~11:20	1st Presentation "The Impact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n Companies in the Non-affected Areas" 발표자: Yukiko Saito, Fellow, RIETI
11:20~11:30	토론자: 장윤중, Director, KIET
11:40~12:00	2nd Presentation "Improving the East Asian Production Networks: Risk Sharing and Cost Down" 발표자: Darson Chiu, Deputy Director, TIER
12:00~12:10	토론자: Hitoshi Sato, Fellow, RIETI
<b>Session 2</b>	<b>Challenges in New Prodcution Networks</b> Session Chair: Atushi Nakajima, Chairman, RIETI
13:40~14:00	3rd Presentation "Regional Production Networks of Korean Firms :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Electronics and Automobile Industries" 발표자: 장윤중, Director, KIET
14:00~14:10	토론자: Yukiko Saito, Fellow, RIETI
14:20~14:40	4th Presentation "Taiwan'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new framework of prodction network" 발표자: Ming-Hsin Kung, Vice President, TIER / Eric Chiou, Associate Research Fellow, TIER
14:40~14:50	토론자: 유진근, Senior Fellow, KIET
<b>Session 3</b>	<b>Production Networks and Trade</b> Session Chair: David S. Hong, President, TIER
15:20~15:40	5th Presentation "Intra-regional Trade of Parts and Materials between China, Japan, and Korea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" 발표자: 유진근, Senior Fellow, KIET
15:40~15:50	토론자: Darson Chiu, Deputy Director, TIER
16:00~16:20	6th Presentation "Economic Globalization & Fluctuations: How does trade induce output co-movement" 발표자: Hitoshi Sato, Fellow, RIETI
16:20~16:30	토론자: Ming-Hsin Kung, Vice President, TIER
16:40~17:10	<b>폐회사</b> (송병준, President, KIET; David S. Hong, President TIER; Atsushi Nakajima, Chairman, RIETI )

## 5. 오오타구(大田區) 방문

### 오오타구

○ 도쿄 도심(23구) 내에 4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지역

- 4,778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한 대표적인 중소기업 클러스터 (Machinery;34%, Metal works;21%, Electronic Machinery;7%, Plastic;6%, Printing;5%, Transportation;5%, Precision;4%, Electronic device;3%, Others;15%, 2005년 기준)

○ 면적은 59.46km<sup>2</sup>, 인구는 693,586명(2009년 5월 기준)

### 오오타구 기관 및 기업 견학

○ KOMATSU Spring(小松ばね工業)

- 1941년 설립, 주요 생산제품은 초정밀 스프링
- 국내에 3개 해외(인도네시아)에 1개의 공장
- 직원수는 일본 82명, 인도네시아 55명
- 일본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거래처인 대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수주 감소 우려

○ Kato Kenma(加藤研磨)

- 3대째 사장, 영업이익율은 15%~20%
- 오오타구 내에서 이전 공정을 담당하던 전문기업들의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연마 이전 공정도 담당하기 시작함
- 해외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거래는 없으며 대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수주

## 감소 우려

- EBM(Engineering Based Medicine) 및 Business Incubation Center, 지원 센터 견학
- 오오타구의 과제
- 오오타구 내에 있던 대기업 생산 공장의 지방 이전 및 해외진출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퇴출되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새로운 대책 및 시스템 구축 필요

## 6. 일본정책투자은행 방문

-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복투자 조정 및 지역밀착형 발전 방안
- 일본의 경우 지역 간 경쟁이 존재하며 정부의 계획은 있으나 영향력은 미미
- 과거의 중요산업(자동차 등)의 지역유치경쟁이 치열했으나 현재는 지역특화 미래산업 유치 등 다양화 경향
- 지역별 특색과 독창성을 살리기 위해 민간투자를 이용하는 방법 고려
- 70년대, 공업재배치법등의 실행으로 도쿄 및 오사카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, 2006년 공업재배치법의 폐지 이후에는 지자체 중심의 자유로운 발전
- 금융기관의 Cluster(지역) 지원 현황
- 현재, 일본에서의 지역지원은 오키나와 은행만 존재 (지역격차가 줄었기 때문)하며 싼 이자, 보조금 등의 지원은 사라짐

- 현재는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주류
- 일본의 경우, 50개의 지역을 10개로 블록화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노력
- 일본의 경우, 엔고·해외진출 증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정책
- 신기술, 기존기술을 활용한 신사업, 사업연계지원이 필요

## 7.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방문

- 일본 수출시장 현황 및 해외경제 예측
- 일본의 수출현황은 그다지 좋지 않으며 미국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상황
- 중국의 경우, 다른 지역과 다른 구조적·역사적 요인에 따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진출 초기는 생산기지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지금은 수요시장의 의미가 더 큼 (자본재, 원자재 수출구조 중심으로 변화)
-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 및 공동화 문제
-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Win-Win전략을 실행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
- 1990년대의 경우,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생산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국내 생산 체계가 어느 정도 확립
- 1990년대 후반이후, 진정한 공동화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
- 같은 산업 내에서의 성공·실패의 양극화 발생

엔고에 대한 평가 및 일본 정부에 바라는 정책

- 엔고는 기업의 능력을 초월하는 외부변수로 경단련은 엔저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

엔고와 산업별 경쟁력

- 도요타의 경우, 해외수요가 80%를 차지하며 해외수요의 50%는 국내생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엔고가 일본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작음
- 하지만 지금의 엔고 수준은 도요타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익의 문제 보다 50%의 국내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

- 캐논의 경우도 최첨단 사업은 도요타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 생산

- 신일본제철의 경우,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시스템을 구축해 왔지만 지금과 같은 엔고 상황에서는 새로운 생산공장을 일본 국내에 만드는 것은 어려움

- 환율과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문제가 중요

- 자원의 수입 면 등을 고려할 때 1\$ = 90엔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함

산업정책에 있어서의 일본 경산성(METI)와 경단련(KKC)와의 관계

-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산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은 아님 (가깝지만 먼 존재)

- 혼다의 경우, 4륜차 생산에 있어 METI가 반대했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있어서도 METI의 책임이 큼

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



- 중소기업을 중시할 경우, 경단련과 대기업과의 관계악화가 경기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
-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 지원보다는 중소기업, 대학, 연구소등의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
- 하지만 대기업에 수익의 원천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
- 중소기업의 경우, 상장 후 목표 상실 문제가 발생
- 여러 가지 모순점을 극복할 정책이 필요

## 8. 권혁욱 교수(일본대학 경제학과) 및 김영각 교수(전수대학 경제학과) 미팅

### 일본의 기업 시스템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

- 고용제도 및 보수·인센티브제도, 기업통치, 계열사, 기업과 정부간의 밀접한 관계 등, 과거의 성공요인으로 여겨졌던 일본 고유의 기업시스템이 1990년대 이후 갑자기 실패요인으로 비판받게 됨

### 고용제도의 문제점

- 고용제도의 변화에 있어 젊은 세대의 희생을 강요
- 유능한 인재의 외국계 기업으로의 유출
- 젊은 세대에 있어 활기가 보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

### 일본 고유의 기업시스템의 변화 필요성

- 일본 기업시스템의 경우, 제품을 둘러싼 복잡성 증가속도가 느리고 개별 최적성의 중요도가 높으며 기능 공유 비용이 높은 경우 경쟁력을 유지
- 하지만 90년대 이후 반도체 기술, 디지털 기술의 진보 및 글로벌화 등을 통한 산업시스템의 질적변화로 인해 일본 고유의 기업시스템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게 됨
- 일본 기업의 경우, 일본 고유의 기업시스템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에 특화하거나 전략적으로 환경을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이 요구됨

## 9. 中村吉明(Nakamura yoshiaki) 과장 미팅 (경제산업성 입지환경정비과)

### 일본의 공동화 논의

- 일본은 플라자합의 직후인 1980년대 중반에 공동화가 제기된 바 있으며, 다시 최근에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
  - 공동화 현상은 기업 입장에서만 보면 자원의 최적배분이고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이므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부분
  - 그러나 국가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일부 도시에서 생산이 급감하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소 우려되는 현상
- 아직까지는 공동화에 대한 염려는 크지 않으며, 그동안의 데이터로 보면 우려할 상황은 아님
  - 통상백서와 중소기업백서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의 경우, 해외생산과 국내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  - 해외생산이 많은 기업이 고용수준도 높다는 분석이 매우 많으며,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

### 해외생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

- 일본 정부의 경우,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권유하는 입장
  - 일본 중소기업의 국내 사업환경은 엔고, 글로벌화, 경쟁심화 등으로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생산을 권유하는 입장
  - 개인적으로 볼 때도, 해외생산의 확대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, 긍정적인 요인도 다수 있다고 판단

- 도레이의 한국투자를 예로 들 경우, 일본내에서도 한국투자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, 기업의 입장을 지지
  - 첨단기술의 한국 유출 우려와 해외생산에 대한 걱정도 이해되지만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확보 차원에서 해외생산 전략을 선택한다면 해외로 가는 것이 바람직
- 엔고가 국내생산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은 일부 사실이지만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
  - 국내생산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면, 저렴하게 중간재를 수입할 수 있고 내수기반이 좋은 기업들은 여건이 불리하지 않는 등 엔고의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
  - 동일 기업내에서도 중간재를 수입하고 조립하고 여러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존재
- 일본의 경우, 해외생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생산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(유발수출, 산업전환) 및 부정적 효과(역수입, 수출대체)를 고려한 새로운 국제적 분업체제 확립이 요구됨
- 기업이 일본국내에 생산공장을 가동하는 이유
  - 첫째, 신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 생산거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 : 국내의 R&D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인프라
  - 둘째, 대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, 유사시 국내에서 최소한 일정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
  - 셋째, 마더 공장(Mother Plants )으로서의 역할이 필요
    - 마더공장은 기업이 사내 보유한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여 기획에서부터 제조까지 실시할 수 있는 핵심공장을 의미
      - 보통은 양산 전단계인 시작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국내에 남겨놓는다는 개념으로 인식

- 일본 기업들은 핵심기술 보호 의지가 강하므로 마더공장에 대한 인식도 강한 편
- 기계산업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, 생산을 전부 해외로 이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
  - 해외진출 확대는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짐을 의미하므로 업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최소한의 생산기반은 국내에 잔류시키려는 의식이 강함
  - 국내 생산기반은 '마더 공장'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
    -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라도 국내에 생산시설이 반드시 필요
    - 아울러 해외생산 제품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, 국내설비가 존재해야만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

□ 일본 기업의 재기 가능성

- 이제 일본기업은 기술력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우며 삼성전자의 마케팅 등 새로운 경쟁력 요인을 배워야 할 시점
  - 기존의 게임의 룰에 입각한 경쟁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
  -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, 연구개발비 상대규모 만으로 경쟁력을 비교할 수 없으며, 외부기술을 발리 흡수하여 내부에서 소화하는 능력배양이 중요
- 대부분의 일본 기업의 경우, 기술 만능주의로 인해 이에 대한 인식이 늦었다는 것이 큰 문제점

10. 北嶋守(Kitajima Mamoru: 기계진흥협회 조사연구부장),  
太田志乃(Ota Shino: 기계진흥협회연구원) 면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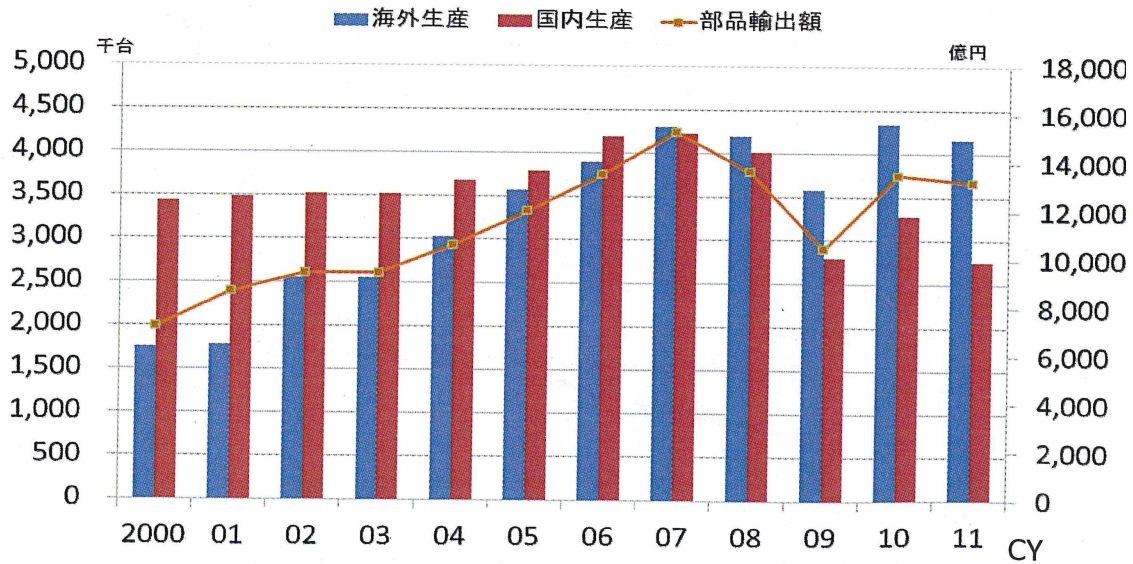
□ 일본 자동차공업회에 등록된 일본의 11개 완성차 업체 분석

- 해외생산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추정
- 중국사건으로 부품의 경우는 생산공장이 일본 내로 일부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완성차의 경우 회귀현상은 보이지 않음
- 해외생산 비율과 산업경쟁력 간의 관계는 거의 정비례
  - 8개 일본 승용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, 해외생산비율이 높아질수록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

□ 일본의 국제적 분업형태의 지속가능성

- 자동차의 경우, 기본적으로 해외진출 후에 국내 회귀하는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음
  - 엔고 현상과 무관하게 해외생산시 수출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분업관계가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
- 도요타의 경우, 해외생산이 늘면서 도요타의 부품업체들이 몰려 있는 아이치 현으로부터의 부품수출도 증가세
  - 도요타는 2007년부터 해외생산이 국내생산을 추월
  - 아이치현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2010년 2011년 해외생산이 대폭 증가한 것과 비례하여 2009년대비 증가
- 도요타 하이브리드 카의 해외생산시 관련부품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
  - 엔고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 해외생산시 연관수출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◆ トヨタのグローバル生産と愛知県の部品輸出推移



자료 : 일본기계진흥협회.

- 친환경차의 생산이 늘면 엔고와 상관없이 부품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음
- 일본 기업별 해외생산비율과 경쟁력 간의 상관관계
- 승용차를 생산기업 8개 일본 기업의 경우, 해외생산비율이 높은 기업이 경쟁력도 높음

11. 佐藤仁志(Sato Hitoshi) 연구원(RIETI) 면담

- 1980년대-1990년대의 해외투자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정책 입장
- 통상산업정책사 3시리즈, 제4장 정책평가 및 계량분석 참조
- 기본적으로 70년대의 섬유에 이어 80년대 부터 무역마찰 축소를 위해 해외생산을 적극 확대하기 시작

□ 해외생산 증가에 따른 대체성과 보완성의 문제

- 한-일 산업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두나라 간을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
- 해외생산의 대체성, 보완성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산업 전체적으로는 보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

□ 일본정부의 해외생산 의견

- 기업의 경우는 이익을, 정부는 수출과 고용 중시하는데서 오는 괴리감이 존재하지만, 일본은 수출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 점에서는 한국과 다소 차이

- 일본은 경제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더욱 중요

- 정부는 내수시장이 작아지면서 해외진출 권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 사업의 해외진출 권유

- 기업의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에너지문제 대처에 한계가 노출되면서 무조건적인 국내공장 증설을 추구하기도 어려운 여건

- 일본의 경우, 1980년대에는 정부와 기업사이의 고용문제에 관한 갈등은 없었지만 해고비용이 높아지면서 고용을 어떻게 신사업으로 이동시키는가의 문제 발생

□ 일본경제의 과제

- 일본 정부의 경우, 해외수익의 소환과 국내투자 중시

- 정부는 해외생산 확대를 통한 투자수익 발생시, 이를 국내로 유입시켜 국내에서 다시 신사업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적인 투자흐름을 유도하



고자 하며, 이의 실현은 앞으로의 중점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

- 개인적으로는 일본경제 전체의 생산성, 효율성 제고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정부도 이와 유사한 입장인 것으로 판단
- 인재양성, 인력유치, 생산성 제고, 외국기업 유치 등을 적극 추구해야할 상황

## 12. 乾友彦(Tomohiko Inui) 교수(일본대학 경제학과) 면담

- 일본 기업의 해외전개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(고용, 생산성 중심)
- 법무성의 법인기업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의 생산성이 정체
- 제조업에서는 상하위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
  - 제조업을 톱그룹, 제2그룹, 제3그룹, 제4그룹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톱그룹에서 생산성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 : 상위 대기업간의 생산성 격차가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
- 경제산업성의 공업통계를 이용하여 산업 및 지역의 고용, 공장폐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 몇가지 결과를 추정
  - 산업집적지와 연관된 기업은 공장폐쇄 가능성이 감소하며, 지역내 임금이 높으면 퇴출기업이 발생
  - 임금(분석에서는 부가가치의 변수로 사용)이 높은 공장은 폐쇄 가능성이 낮으며 고용도 늘릴 가능성이 상승 :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을 전략적으로 국내에 잔류시키기 때문

- 저임금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기업은 공장폐쇄 가능성이 크며, 반대로 고임금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으면 폐쇄 가능성이 크게 낮아짐
- 일본의 글로벌 기업(multi-plant multinational)일수록 생산성이 높고, 단일공장을 가진 국내중심기업(single-plant domestic firm) 일수록 생산성이 낮은 가운데, 일본 글로벌 기업의 퇴출률도 높은 수준
  - 이를 통해,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으로 파악

○ 해외진출이 총요소생산성(TFP)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

- 생산성의 경우, 해외진출 1년째는 생산성이 높으나 시기가 지날수록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향
- 고용에 대한 해외진출의 영향은(미진출 기업과 비교시) 시기가 지날수록 고용도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며, 이는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효과로 판단

□ 연구 결론

-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낮으며, 이는 비제조업의 글로벌화 수준이 낮은데 기인
- 산업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
  - 글로벌화가 기업의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
  - 특히 대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, 중소기업에게도 긍정적이지만 대기업에 비해 투자여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
- 해외생산이 실질생산량 및 고용에 플러스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
  - 그러나 해외진출을 하지않은 기업에 대한 영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불확실

-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는 미지수 : 국제화 수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

### 13. 유재상 교수(일본복지대학 경영학과) 미팅

- 일본의 화(和·consensus)를 중시한 의사결정 형태체제
- 네마와시(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일본인들의 사전작업)란 용어 존재
- 회의 전 물밑작업을 통해 구성원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후 회의는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에 지나지 않음
- 과감한 결단보다는 실패의 위험성 회피를 중시
- 관련부서간의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조정을 통한 합의가 중심으로 주요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속도감이 느림
- 아날로그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네마와시를 포함한 일본식 경영방식이 정보화, 디지털화, 국제화라는 환경변화 속에서는 일본병으로 전략
- 일본이 일본병을 앓고 있는 사이에 한국기업이 더 많은 분야에서 일본기업을 추월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
- 하지만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 등의 한국식 경영방식이 또 다른 환경변화에 의해 한국병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넓은 시야에서의 분석과 변화가 필요